

성진씨앤씨, 대구은행에 DVR 공급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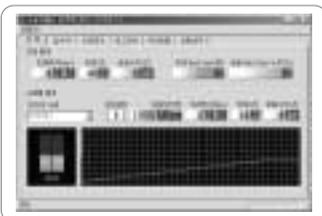


디지털영상저장장치 전문업체인 성진씨앤씨(대표 임병진)는 '대구은행 보안장비 입찰'에서 공급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입찰은 대구은행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 감시시스템을 디지털 방

식으로 교체하고 추가 설치하는 것 외에 365코너의 보안 장비 설치를 위해 진행되었다. 성진씨앤씨는 DVR 137대와 카메라 200대 등 감시시스템 일체를 설치 및 공급하게 된다.

성진씨앤씨가 대구은행에 공급하는 DVR은 8채널 16채널의 'NM-5000시리즈(사진)'로 국내 금융권에 가장 많이 공급된 이 회사의 '베스트셀러' 제품 중 하나이다. 가격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최대 240프레임의 고해상도 녹화에 동영상 디스플레이 기능을 내장하였으며, 다양한 채널별 조절 기능 및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감시가 가능하다. 성진씨앤씨는 올초 국내 최대 시스템 경비업체인 에스원의 DVR 공급자로 선정되는 등 국내영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네트호스팅, 미디어 보안서비스 출시



아이네트호스팅(대표 신중현)은 요술지팡이(대표 채문석)와 동영상 불법관람 차단 솔루션인 '요술자물쇠' 재판매 계약을 맺고 미디어 보안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요술자물쇠는 유료 동영상의 인터넷주소(URL)의 공개나 ID 공유 등으로 인한 불법 관리를 차단하고 무단복제를 방지하는 솔루션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유료회원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무단관람자를 차단하고 스트리밍 무단 복제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시간 원격 서버 모니터링 기능으로 접속자, 무단관람자, 사용자별 관람내역 등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미디어 보안 서비스는 동시접속자수 최대 2만명까지 지원가능하며 라이트(Light), 디럭스(Delux), 엔터프라이즈(Enterprise)형으로 구분돼 임대 및 판매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아이네트호스팅은 기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미디어 보안 서비스 등을 갖춰 미디어 서버 전문 호스팅 서비스로 사업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시스템, 인터넷전화 새 제품 출시



HANA SYSTEMS

한시스템(대표 신동주)이 IP전화인 '아이넷폰'과 IP PBX '아이넷PBX' 시리즈를 출시, 인터넷전화(IP전화) 시장에 진출했다. 아이넷폰은 인터넷환경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음성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넷 전화기며, 아이넷PBX는 콜매너저 및 미디어 게이트웨이 기능을 지원하는 인터넷전화 교환기다. 아이넷폰은 국제표준 프로토콜인 SIP 및 H.323, MGCP, 메가코(Megaco) 등을 지원하며 8비트, 16비트 음성압축코덱을 지원한다. 또한 랜을 통한 전원공급기능(PoE, IEEE802.3af) 및 3자통화 및 음성회의 기능도 제공한다.

아이넷PBX는 최대 300명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유무선·화상·소프트 IP폰 등의 다양한 단말 지원과 SIP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타 IP PBX와의 연동도 보장한다.

드림위즈, 무한 용량 메일 서비스 '첫선'



드림위즈(대표 이찬진)는 6월 중순부터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웹메일 및 블로그형 개인 홈페이지 '홈피'의 용량을 무한대로 높이고, 이를 평생 계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드림위즈는 지난 달 19일부터 기존 회원들에게 현재 30MB인 메일 공간 용량을 100MB로 늘리고 여기에 다시 메일 첨부파일 및 자료보관 등이 용이한 128MB의 '드림디스크' 등을 모두 228MB로 늘려 제공하고 있다. 228MB는 국내 최대규모다. 드림위즈는 이처럼 대규모 또는 '무한용량'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스팸차단 솔루션인 '스팸스톱'과 '드림디스크' 기반의 백업시스템 등 개인공간 및 서버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노력이 축적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드림위즈는 '무한용량' 서비스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등과 호환할 수 있도록 주소 관리 기능의 편리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주소록 리스트를 한번에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주소록 퍼뜨리기' 기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인포허브, 엠피온 인수 중국·동남아시아 직접 공략



모바일 인터넷 전문업체 인포허브(대표 이종일)가 중국의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 엠피온아시아의 지분 및 경영권을 포괄 인수, 중국 및 동남아시아 현

지공략에 적극 나섰다. 그 동안 외국 기업들이 경험 많은 한국 모바일콘텐츠업체를 인수하는 사례는 이어져 왔지만,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을 직접 인수한 사례는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엠피온아시아는 지난 2001년 출범한 모바일 콘텐츠 및 솔루션 전문 회사로, 이듬해 중국 제1위 통신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을 시작으로 지난해 차이나유니콤의 전국 서비스제공권까지 획득한 유력 서비스제공업체(SP)다. 엠피온아시아는 그동안 중국 전역과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벨소리, 모바일 가라오케, 애니메이션 배경화면, 게임, 아바타, 포토 등 각종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중국에선 단문메시징서비스(SMS)까지 전개, 명실상부한 종합 콘텐츠회사로 성장해왔다. 인포허브는 이를 계기로 중국 전국망 사업권 및 홍콩·싱가포르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엠피온아시아의 배급망을 통해 우수한 국산 콘텐츠를 중국 등에 적극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성우시스템, 도면관리시스템 '팀플러스LT' 출시



성우시스템(대표 이지성)은 도면관리 시스템(PDM) 신제품인 '팀플러스LT'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구축시간이 오래 걸리는 PDM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 표준화된 업무규칙과 정보 템플릿을 미리 내장한 것이 특징이다. 개발 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같은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춰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라이선스 변경만

으로 각종 확장모듈을 추가 장착할 수 있다. 성우시스템은 고가의 비용과 장기간의 구축기간으로 PDM 도입을 망설이던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을 펼칠 계획이다.

핸디소프트, 국내 SW기업 처음 미국서 고객 컨퍼런스



핸디소프트(대표 김규동)의 미국 자회사인 핸디소프트글로벌은 5월 18일부터 21일(미국 현지시간)까지 라스베이거스 만델라베이 리조트에서 '포커스 2004 : BPM 지식포럼'이라는

주제로 고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내 SW기업이 미국에서 글로벌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은 최초다.

이번 고객 컨퍼런스는 핸디소프트의 대표 제품인 BPM(업무프로세스관리) 솔루션 '비즈플로우'를 사용하는 전세계 150여 기업 및 기관의 사용자들과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핸디소프트는 미국 연방정부 기관과 세계 최대의 액화 화물 운송 전문업체인 스톤트 닐슨, 비자신용카드 등 각 산업분야에서 BPM 적용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또 미국에서 기업의 회계부정을 위해 제정된 '사베이-옥슬리(SOXA)법안'에 따라 대형 기업들이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SOXA 솔루션'에 대한 적용사례도 함께 발표했다.

핸디소프트글로벌 육상균 대표는 "이번 고객 컨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은 물론 기존 고객들의 유지보수 계약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핸디소프트글로벌은 해외시장에서 1000만달러 매출을 올려 국산 SW 해외시장 개척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두리정보통신, 동부증권에 선물·옵션 HTS 제공



증권관련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두리정보통신(대표 김현섭)은 선물·옵션 전용HTS인 '빅뱅(Big Bang)'을 동부증권에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제공하는 시스템은 선물옵션팀 및 지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내부용 시스템으로 최근 선물옵션부문의 고객확보를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짐을 감안해 전략적인 콘텐츠를 강조해 기획한 시스템이다.

특히 파생상품 시장의 전문투자자에게는 주문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주문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매매기법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두리정보통신은 설명했다.

새길정보통신, EBS 방송 시청 관리 시스템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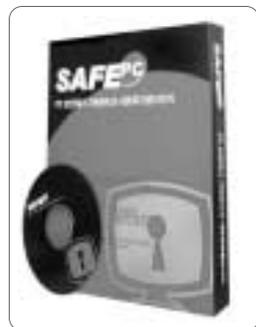


대덕밸리 벤처기업인 새길정보통신(대표 김수겸)이 교육방송(EBS)학습자료를 활용한 'EBS 방송 시청 관리 시스템'을 개발,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EBS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학년별·영역별, 과목별, 수준별로 다양하게 구성·DB화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해당 교사들은 학생들의 ▲EBS 방송 시청 시간 ▲시청 내용 ▲학생들의 질문 사항 등을 한 눈에 확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진학 지도 등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 EBS 방송 시간대와 학교 서버 다운을 통해서만 시청할 수 있었던 강의를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고 ▲인기강의 내용 ▲타학생 대비 나의 시청 진도율 ▲권장 시청 진도율 등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

새길정보통신은 이 시스템을 서울 자양중·고등학교에 시범 설치했으며 전국 EBS 교재 대리점 유통망을 통한 본격판매에 들어갔다.

닉스테크, 패치 자동 설치 보안제품 '세이프PC 2.5' 출시



닉스테크(대표 박동훈)는 패치관리 기능을 추가한 PC보안 제품인 '세이프PC 2.5'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바이러스나 해킹을 막는 기본 기능 이외에 보안 취약점을 없애주는 보안 패치 파일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패치 파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만일 보안패치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원격에서 이를 설치한다. 한편 닉스테크는 패치 관리 기능을 보완해 자산관리 기능과 연동할 예정이다. 닉스테크는 최근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단, 과학기술부 등에 세이프PC를 공급했다.

닉스테크는 패치 관리 기능을 보완해 자산관리 기능과 연동할 예정이다. 닉스테크는 최근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단, 과학기술부 등에 세이프PC를 공급했다.

지오이네트, PC백업 솔루션 '백업마스터 3.5' 발표

데이터 보호 전문기업 지오이네트(대표 전성영)는 PC 데이터 자동 백업솔루션 '백업마스터 3.5' 버전을 발표했다. 백업마스터 3.5는 한 화면에서 내 컴퓨터와 원격서버가 동시에 보이며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백업과 복



구가 쉽게 이루어지는 등 사용자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메뉴 형식을 상단의 툴바 형식으로 개선했고, 기존 메뉴가 있던 자리에는 스킨 기능을 도입해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화면을 재구성할 수 있다. 또 공유기능 강화로 백업된 데이터에 대해서 원하는 사용자, 그룹 등에게 공유가 가능하고, 공유된 폴더에 대해서는 업로드나 다운로드, 삭제가 가능하다.

백업마스터 3.5는 기업용 ASP 제품으로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버를 할 수 있는 제품과 패키지 제품으로 구분된다. 이미 삼성전자 디자인센터, 한국야쿠르트 등과 계약을 체결, 현재 설치 중이다.

시큐어소프트, 통합보안 제품 미국 수출



시큐어소프트(대표 김홍선)는 미국 플로리다 공과대학과 위스토프 병원에 통합보안 제품인 '엡솔루트' 시리즈를 공급했다. 이번 공급은 시큐어소프트의 미국 협력 업체인 엠파이어컴퓨팅&컨설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시큐어소프트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첫번째 공급 사례다.

시큐어소프트는 남동부 지역에 영업망을 갖고 있는 엠파이어컴퓨팅&컨설팅을 통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시큐어소프트는 또 이와 별도로 미국 동북부 지역에서 보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TLIC와도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김홍선 대표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많은 고객을 확보했지만 미국 시장은 첫 사례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